

“나가면 손해”...면세유 급등에 조업 중단 속출

중동 사태 장기화에 4월 들어 면세유 55% 올라
어민들 생산비 부담에 조업철 앞두고 출어 포기
봄철 어획량 감소 영향 수산물 가격도 상승 전망



2일 전남 완도군 한 부둣가에 어선들이 줄이어 정박해 있다.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유가 급등함에 따라 국내 산업 전반에도 연쇄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 국제 유가 불안이 어업용 면세유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주요 어종이 집중적으로 잡히는 조업 성수기에도 어민들은 바다로 나가지 못한 채 출항을 포기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어민들 사이에서 “나갈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식탁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2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픈넷에 따르면 3월 초 기준 200ℓ 한 드림 가격은 17만 5000~17만6000원 수준이었지만, 3월 말과 4월 초에는 27만5000~27만7000원까지 치솟았다. 불과 한 달 만에 약 10만원 이상 상승한 것으로, 상승률은 55% 안팎에 달한다. 이 같은 급등세는 전남 주요 어항의 풍경을 바꿔 놓고 있다. 목포와 완도, 여수, 신안 등의 항·포구에서는 출항을 준비하는 어선보다 부두에 묶여 있는 배를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일부 어민들은 가격 인상 직전 연료를 확보하기 위해 급히 기름을 채워 넣었지만, 이후에는 조업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다. 특

히, 중형 저인망 어선의 경우 한 번 출항 시 소모되는 연료가 수천ℓ에 달하는데, 이번 가격 인상으로 한 차례 조업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만 수백만원에 이르는 상황에 놓였다. 연료비 비중이 전체 조업 비용의 절반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면서 어민들 사이에서는 조업 자체가 생계를 위한 활동이 아니라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 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완도에서 30여년 동안 어업에 종사해 온 김중수씨(62)는 “기름값이 이 정도면 고기를 많이 잡아도 인건비는커녕 기름값도 전지가 어렵다”며 “지금은 조업을 나가면 나갈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라 차라리 배를 세워두는 게 낫다”고 토로했다. 이어 “봄철이 1년 수입을 좌우하는 시기라 원래는 하루라도 더 나가야 하지만 지금은 나가면 순간 적자라 사실상 조업 포기 상태”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올해 수입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일부 어선에 그치지 않고 전남 어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연료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버텨왔던 소형 연안어선들까지도 채산성이 무너지면서 출어를 포기하

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일부 어선은 조업 횟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거나 조기 철망에 들어가는 등 사실상 비상 운영에 돌입했다. 지역 수협과 어업인 단체들은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대형 어선뿐 아니라 소형 어선까지 연쇄적으로 멈추면서 지역 어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봄철 조업은 전남 어업에서 연간 수익의 40~60%가 집중되는 핵심 시기로 꼽힌다. 이 시기를 놓칠 경우 단순한 계절 손실을 넘어 한 해 전체 소득 구조가 무너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어민들은 “지금 상황은 몇 달 버티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올해 어업 자체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수준”이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일부 어민들은 이에 어선 유지비와 대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해 휴업을 넘어 폐업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업 감소는 곧바로 어획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3월 말부터 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벌써부터 일부 어종은 위판 물량이 감소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산업계에서는 공급 감소가 본격화될 경우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수협중앙회도 긴급 대응에 나섰다.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 유가 불안이 이어지자 어업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수협중앙회는 2일 ‘중동전쟁 비상 대응

대책반’ 첫 회의를 열고 어업용 유류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예산을 편성, 100억 원 규모의 유류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은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 유가 상승이 어업 현장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총회 의결을 거친 뒤 이른 시일 내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이달 발생한 유류가격 상승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향후 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상황은 단순한 유가 상승을 넘어 중동 정세와 해상 운송 불안이 결합된 복합 위기”라며 “국제 유가 변동성이 큰 상황인 만큼 추가 지원과 대응 방안도 탄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

현대차, 수소전기버스
누적 판매 3000대 달성

현대자동차는 자사 친환경 수소전기버스의 국내 누적 판매량이 지난달 마감 기준으로 총 3062대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현대차의 수소전기버스는 지난 2024년 국내 누적 판매 1000대 달성에 이어 지난해 2000대를 넘어섰고 이번엔 3000대를 돌파했다. 이들 버스는 2019년 출시한 세계 최초 시내용 수소전기버스 ‘일렉시티 FCEV’와 2023년 출시한 고속형 수소전기버스 ‘유니버스 FCEV’ 2종이다. ‘일렉시티 FCEV’는 최고출력 180kW의 수소연료전지 시스템과 최고출력 180kW, 최대 토크 4500N·m의 모터, 78.4kWh의 고효율 리튬 이온 배터리를 탑재했다. 공인 연비 기준 1회 충전 시 최대 751.2km를 달릴 수 있다. ‘유니버스 FCEV’는 최고출력 180kW의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최고출력 350kW, 최대 토크 1800N·m의 모터와 48.2kWh의 리튬 이온 배터리를 탑재했다. 세계 최초로 자기 유전 유체(MR) 댐퍼와 차량의 흔들림을 줄이는 제어 로직을 적용했고, 1회 충전에 최장 960.4km를 주행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수소 모빌리티 확대를 위해 그룹 내에서도 수소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수소전기버스 보급 확대에 맞춰 상용 전동버스 AS 거점을 40개소 이상으로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2026년 수소전기버스 국비 보조금은 총 1800대 규모로 편성됐다. 현재 수소버스 충전이 가능한 대응량 수소충전소는 총 80개소가 운영 중이다. 2026년 내 21개소가 추가 구축될 예정이다. 정승기 기자 sky@

삼성전자 게이밍 모니터, 7년 연속 글로벌 1위

지나해 310만대 점유율 18.9%
혁신 기술로 모니터 시장 선도



삼성전자 게이밍 모니터가 7년 연속 글로벌 게이밍 모니터 시장에서 1위를 달성했다.

삼성전자 게이밍 모니터가 7년 연속 글로벌 게이밍 모니터 시장에서 1위를 달성했다. 2일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5년 주사율 144Hz 이상 게이밍 모니터 시장에서 금액 기준 18.9%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OLED 모니터 시장에서도 금액 기준 26% 점유율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게이밍 모니터 출하량은 310만대로 2024년 대비 약 15% 이상 성장했으며, OLED 모니터 출하량도 234만대로 2배 증가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9일부터 13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세계 최대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 ‘GDC 페스티벌 오브 게이밍 2026’에 참가해 2026년형 오디세이 게이밍 모니터 신제품을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GDC 2026에서 글로벌 게임 제작사들과의 파트너십을 발표하며 차세대

게이밍 생태계 확장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달 중 글로벌 게이머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게임인 ‘헬 이즈 어스’를 3D 모드로 지원하며, 올해 말까지 ‘크로노스: 더 뉴턴’을 포함해 지원 게임을 12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승기 기자 sky@

광주,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사업 최종 선정

AICA, 인재 양성·기업 경쟁력 강화 ‘투트랙’ 추진
중소기업 AX 전환·재직자 AI 직무 역량 등 강화도

광주 지역 산업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에 나서 ‘AI 실증 도시’에 한 걸음 다가섰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CA)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추진하는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되며, 중소기업의 AX(전환)와 재직자의 AI 직무 활용 역량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총사업비는 15억원 규모로, 권역 거점센터 선정에 따른 추가 재원도 확보해 지역 산업 전반의 AI 전환 기반을 마련했다. 공동훈련센터는 기업의 실제 업무

를 진단하고, 맞춤형 교육과 실증을 연계해 현장 적용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단순 교육을 넘어 훈련, 실증, 확산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AX 지원 모델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AICA는 협약 기업 30개사 이상을 발굴해 기업별 수요를 반영한 AX 전환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관리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 교육과 실무 중심 전문 과정,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PBL) 등 현장 밀착형 교육을 추진한다. 특히, 기업 데이터를 활용한 PBL 방식의 문제해결형 훈련 통해 산업 현장에

서 즉시 적용 가능한 AI 전환 성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AICA와 전남대학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한다. AICA는 기업 발굴 및 진단과 인프라 제공, 핵심기업 PBL 기반 교육을 수행하고, 전남대학교는 교육과정(일반, 전문) 개발과 운영을 담당한다. 산업과 교육을 연계한 협력 구조를 통해 AI 인재 양성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AICA는 국가 AI 데이터센터와 드라이빙시뮬레이터 등 실증 장비, 테스트베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교육과 실증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훈련 분야 역시 모빌리티, 에너지, 헬스케어, 제조 등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해 산업 현장 중심의 AI 적용 모델 발굴·확산에 초점을 맞췄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DAE 오토넥스

R&D Mobility Core Technologies

DAE오토넥스 기술연구소는 자동차용 연료저장용기 모듈과 핸들 햅틱모터 개발을 시작으로, 전기차(노노소재) 및 수소차 핵심 부품 등 차세대 친환경 모빌리티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차량 모빌리티 핵심 부품 솔루션 LPG-수소 저장용기부터 첨단 발열체까지,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선도합니다.

햅틱모터
핸들 진동률 이용하여 운전자에게 차선 이탈 정보를 전달하는 장치

LPG 저장용기
액화석유가스를 안전하게 저장·운반을 위해 특수제작된 압력 용기

발열체
균일한 발열과 고효율을 구현하는 모빌리티 히터

액체수소 저장용기
수소를 액체상태(영하253℃)로 보존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극저온 용기

LPG 저장용기
경증된 기술력, 안전성과 효율성을 겸비한 차량용 LPG 저장용기

액체수소 저장용기
정밀한 설계와 첨단 기술력을 기반으로, 차세대 수소 모빌리티와 에너지 인프라의 발전을 이끄는 핵심 기술

Total Thermal solution
현대 소재와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모빌리티와 다양한 산업에 확장 가능한 통합 열 솔루션

다년간의 개발 경험과 다양한 차량 플랫폼 적용 이력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형태의 LPG저장 용기를 개발·제조 하고 있습니다. 내압성과 가압성을 확보한 안전 설계는 물론, 설치 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성능 검증과 품질 향상을 통해 신뢰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53℃ 극저온 환경에서도 안정적 저장이 가능한 상용차용 대형 액체수소 저장용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밀한 용접단열 기술과 고강도 설계를 바탕으로, 장거리 주행용 수소차와 수소산업 전반에 최적화된 저장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탄소노·발열체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연구개발 경험과 다수의 원천 특허, 전용 생산 설비를 바탕으로, 전기차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 적용 가능한 고효율 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실용적 가치와 신뢰를 제공하는 저장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한우 KGS 및 ISO 인증을 목표로 글로벌 수소 모빌리티 시장에서 핵심 부품으로 자리매김하며, 차세대 에너지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고성능 저장 기술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